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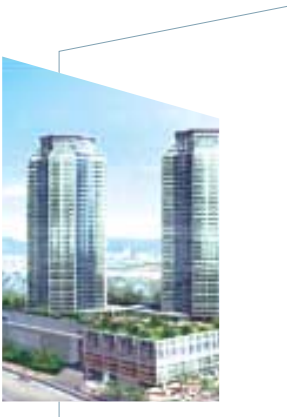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중국섬서성 설비안장공정공사 대표단, 대한설비건설협회 방문



중국 안장협회 부회장인 장이광(張義光) 중국섬서성 설비안장공정공사 총 경리를 비롯하여 장련관(張連寬) 부총경리, 동용탕(董永堂) 부총경리, 쉬신팡(許新芳) 부총경리, 예지아제(葉家杰) 등 대표단이 지난 4월 20일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를 방문하였다.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와 중국 안장협회는 지난 99년 8월에 양국 설비업계간의 친선 유대와 제반협력증진을 위하여 합의비망록을 교환한 후, 지난해 11월 우리 협회 대표단이 중국 안장협회를 방문하여 양국 설비건설업 발전을 위한 제6차 합의비망록을 교환한 바 있다」면서 「오늘 안장협회 장이광 부회장을 비롯한 섬서성 설비안장공정공사 여러분의 우리 협회 방문은 양국 설비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안장협회 장이광 부회장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데 대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을 비롯하여 대표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오늘



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더 양국 설비업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은 물론 정보교환과 함께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표단이 중국 섬서성 설비안장공정공사에 꼭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일용근로자 노무제도 관련 각시·도회 사무처장 간담회 개최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4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일용근로자 노무제도 관련 각시·도회 사무처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일용근로자 노무제도 현안문제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시공참여자 이해 및 관련법 검토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현안문제

공공공사 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분(국민연금 54%, 건강보험 56%) 부족으로 사업주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민간 발주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원가에 보험료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 보험료 납부거부로 근로자부담금까지

사업주가 대납(13.8%)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추진계획

- △ 공공발주공사 실비보험료 확보 : 재정부와 협의하여 공공공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사후 실비 정산 조속 추진
- △ 민간발주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원가반영
 - 상위 300위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특히 민간 발주부분의 하도급시 보험료 계상 건의
 - 건교부 장관이 민간발주부분 건설공사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에 협조 공문 요청 추진
 - 건교부와 협의하여 민간공사 부분도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제도 개선 추진(법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및 실비 정산 추진)
- △ 공사원가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반영된 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임금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와 함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서 연금 및 보험신고 대비
- △ 보험료 징수 및 납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단체인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와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 구축

■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 △ 2005년 : 공사실적액 332억 이상, 대상회원사 18개사
- △ 2006년 : 공사실적액 214억 이상, 대상회원사 40개사 (2005년 실적기준)
- △ 2007년 : 공사실적액 110억 이상, 대상회원사 100개사 (2005년 실적기준)
 - 공사실적액은 부과세·외주비 제외

※적용제외율 단계적 축소·폐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적용제외율 축소·폐지 특례 조항 신설

△ 단계적 축소·폐지

|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어업 | 85% | 75% | 65% | 55% | 45% | 35% |
| 석탄광업 | 75% | 65% | 55% | 45% | 35% | 25% |
| 건설업 | 55% | 45% | 35% | 25% | 15% | 5% |
| 기계장비 제조업 | 10%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부칙<제7568호, 2005. 5. 31.>

- ① (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부담금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업종제외율 변경에 따른 고용인원

| 년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건설업종 제외율 | 55% | 45% | 35% | 25% | 15% | 5% |
| 332억 이상 | 2명 | 3명 | 3명 | 4명 | 5명 | 5명 |
| 214억 이상 | - | 2명 | 2명 | 3명 | 3명 | 3명 |
| 110억 이상 | - | - | 1명 | 1명 | 1명 | 1명 |
| 110억 이하 | 적용대상 아님 | | | | | |

- 100-331억은 5년간 납부금액에 1/2만 납부(50% 이상 고용시)

※고용부담금과 장려금

- △ 고용부담금 : 부족인원 1명당 50만원/월 부담금 납부
- △ 고용장려금 : 초과인원 1명당 30-60만원/월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리방안

△ 부담금 납부 절감을 위하여

- 신규취업 일용근로자 현장별 수첩현황 파악
- 장애인 일용근로자 불이익 예상 신고 기피 : 수첩소지자 개별관리 및 계속 취업 유도
- 장애인 관련단체에 구인 요청 등
- 적법 하도급 활성화(시참자, 외주비)

※향후추진계획

건설업종 취업 가능 장애인(4·6급) 데이터 구축을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건의

■ 일용근로자 소득자료(지급조서)

※확대 시행(2005년 12월 31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저소득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의 현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을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서 제출 대상 확대 시행(소득세법 제164조)

- 기존 : 1년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현행 : 2006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자료신고

- △ 종업원 1인 이상 자영업자(다음해 0 2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사업주 : 매분기(4, 7, 10, 1월) 인건비 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 △ 제출주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 △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없음(홍보기간)
- 미제출시 제재사항 : 2007년부터 미제출 총금액의 2%가

산세 추정

※원천징수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 8만원 이하 면세(소득세법 제47조)
- △ 일용근로자 일급이 8만원 이하(실제는 10만 7천원)는 원천징수대상은 아니지만 지급조서는 신고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은 징수대상이 아님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문제점

- △ 국세청 제출 소득자료에 의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추징 우려
- △ 행정부담 가능 : 일용근로자 특서상 수시 이동으로 인력관리 어려움
- △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주민등록말소자의 인적사항 제출 기피

※향후 추진방향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자의 소득자료는 당해 목적(EITC)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요청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기간 연장(2008년까지)을 재경부와 국세청에 건의

-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4개 단체의 공동협의 및 공조체제 대응

이날 박종학 회장은 각 시·도회 사무처장들에게 위에 열거한 사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시·도회 사무처장들이 지역 회원사들에게 자세히 전파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4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재경이사 간담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일용근로자 노무제도 현안문제 및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4개 단체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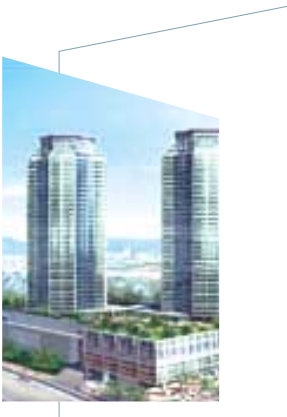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4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김경희 상임이사 주재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개 단체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영상태 평가 방법 개선 △주40시간 근무제도 등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단체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 노무제도

정부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소득자료(임금지급조서)를 매분기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ITC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저소득근로자에게 일정비용의 현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최상위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인 극빈층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EITC 시행을 위한 통합전산망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인데 여기에 4대보험 통합 자료와 일용근로자 과세자료가 포함되어 관련부처와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EITC를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제도가 건설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착된 이후에 시행해 줄 것과, 임금지급조서 자료는 EITC 이외에 사용되는 것을 유예토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국세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도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협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개 단체는 임금지급조서를 당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 공유는 정산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등 관련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1개월 이상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금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직접노무비의 9%, 건강보험은 직접노무비의 4.48%로 사업주 부담분은 6.74%에 해당되지만 근로자 부담금까지 합치면 14%에 달해 설비건설업계 전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설비건설업계의 평균이익률 2%를 감안할 때 10%대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 없이 자비로 부담하고도 살아남을 설비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협회는 공사원가에 의무보험금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결과 재경부가 공공공사에 공사원가를 일부 반영하였고, 건교부도 금년부터 공사원가에 보험료의 일부가 반영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하도급자의 낙찰률에 의하여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의 전액이 아닌, 극히 일부만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공사에는 아직까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다.

더구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이 것까지 사업주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협회는 금년도 최우선 사업목표로 공공공사 보험료의 실비정산과, 민간공사의 공사원가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협회는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지급한 보험료가 하도급자에게 확실하게 지급되도록 보험료 실비정산 도입을 재경부등에 건의하였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설비건설의 70% 정도가 민간공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간발주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해결 없이는 4대보험의 정착이 불가능하므로, 민간발주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공사원가 반영과 함께 미 반영 시 발주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건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들은 우리 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가 공동연명으로 관련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특별시회 산학협력 간담회 개최



서울 특별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4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강석대 회장, 서광문 부회장, 임종태 부회장, 은근수 감사, 최기원 운영위원과 경원전문대학 안교철 교수, 대림대학 임창현 교수, 두원공과대학 박호준 교수, 수원과학대학 김동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석대 회장은 “업계와 학계가 긴밀한 산·학 협력을 통해 설비건설업계의 효과적인 인력 유입은 물론 기술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꾀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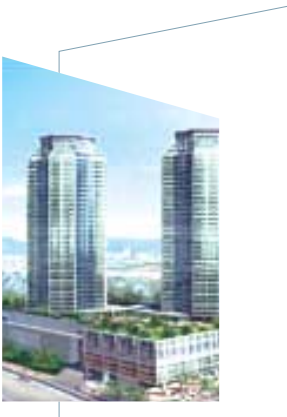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강석대 회장**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서울특별시회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비업계의 활발한 인력 유입과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두들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태 부회장** : 오늘 간담회를 위해 저는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2년간



(주)우원의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 동향에 대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 졸업자인 경우 학교에서 바라본 산업체와 실무에서 경험하는 현실과의 차이로 인해 조기 전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 발령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 적응하지 못한 것과, 스스로 설비를 3D업종이라 생각하고 대기업 등의 종속관계로 인해 자신의 직업을 비관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소기업의 적정급여에 대한 불만과 쉽게 벌 수 있는 직업군과의 비교로 근무의욕 저하와 함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기능공들 및 건설사 감리감독 등과의 마찰에 의한 충돌 퇴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비건설업에 종사하려면 설비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원리 및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등한시하므로써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지식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설계 및 현장관리자로서 필요한 CAD교육, 견적 및 시공관리를 위한 적산과목의 교육 심화가 필요(기본적인 물량산출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기본적인 업무능력(최근 신입사원들은 기초적인 기안력이 없다)과, 취업 전 현업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 등이 미비하므로 각 대학에서는 실무에 대한 특별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에 대한 정확한 전달로 취업 전 자신의 진로를 결정토록(공사·설계·TAB 등 적성에 따른 분야 결정) 하고, 갈수록 회사 조직에서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직장인으로서 기본예절 등에 대한 소양교육등 인성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업에 종사 중인 외부 강사들의 현실에 접근된 강의(겸임교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제어공사의 경우 대부분 교과서에 편중된 강의로 현장에서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수행한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은 능숙하지만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 사용이 미숙해 취업 후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산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주)우원의 경우 1개월간의 신입사원 교육을 직능별, 분야별로 시행하여 왔으나 조기 퇴사 및 교육자의 업무 처리 등에 의한 시간 부족으로 흡족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학년 하계 방학 중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및 심화학습에 밀려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체와 학교 서로 협의하여 1학년 하계 및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을 시행 한다면, 학생 자신이 공부해야 할 기본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취업하여 수행할 일들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조기 현장실습에 대한 소감 등을 활용하여 잔여 학습기간 동안의 방향을 기능할 수 있는 부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경원전문대학 안교철 교수** : 기계설비협의회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홍보를 위하여 만든 '미래산업의 꽃 설비' CD를 우리 학교 건축설비과 지원자 학생들 집으로 우송한 결과 합격한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설비건설업계의 CD 홍보 덕분인지 이번 1학년들은 예년에 비해 수준이 상당히 높고 공부에 대한 열의도 높습니다.

▲**대림대학 임창현 교수** : 우리 대학은 29개 과가 있는데 재학률이 저조한 학과도 많습니다. 건축설비학과는 재학률이 3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입시경쟁률 때문에 원하는 학과보다 점수에 맞는 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학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 건축설비학과는 소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

다. 특히 취업률은 다른 학과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동안 장학금 지급 등 여러모로 도와주시므로써 산·학 협력의 모범을 보이신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과학대학 김동우 교수 : 우리 학교에서는 건축설비학과 홈페이지에 ‘미래산업의 꽃 설비’ CD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의 신입생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강석대 회장 : 각 대학의 졸업생 중 종합건설회사에 들어가는 비율과 설비건설업계에 들어가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대림대학 임창현 교수 : 대림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만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하고픈 학생은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비건설업계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대 회장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비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대부분 2, 3년 안에 대기업에 스카웃 됩니다. 우리 전문업체는 인력양성소나 다름없지요.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 자신의 전문분야에 매진할 수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광문 부회장 : 지금 학생들은 일을 조금 심하게 시켜도 힘들어하는 등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취업 후 현장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최기원 운영위원 : 얼마 전 건설성장포럼에 참석했었는데, 구성원들이 건설업계 5명, 전문건설 3명, 설비업계 2명, 연구원에서 2명이 참석했습니다. 건설분야에서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정작 종사자들은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건설포럼은 건설업법 체계를 다시 만들고 상생

하지는 취지인데 설비관련교수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설비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설비건설산업의 방향제시에도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은근수 감사 : 설비건설업계 종사자들이 3D로 인식하고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여건이 나쁘고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비만 그런 게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3D 업종이라고 외면하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어떻게 하면 많은 인력들이 유입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석대 회장 : 은근수 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설비건설업계의 인력 유입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과학대학 김동우 교수 : 산학협력 차원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회원사에 취업을 연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비건설업계의 미래를 짚어갈 학생들이 설비건설업계로의 진출이 많아진다면 앞으로도 더욱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회사에 현장실습을 가면 단순히 노동만 하다가 왔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각 회사에서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실습방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현장 경험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강의의 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석대 회장 :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으려면 처음에는 고생하고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2년제 및 3년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세대 감각에 맞는 업무환경을 누구나 원하지만 보기 좋은 것만 추구한다면 현장에서 써줄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실습을 나와 현장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실습 시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일을 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취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에 취업후 현장근무에 대비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학계에 설비건설산업의 전반적

인 이해에 대한 교육과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지식을 강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학계는 업계에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들이 학생들의 취업 연결과 함께 현장 실습시 구체적인 실습방안 마련 및 현장경험이 많은 경력자들의 성실한 강의를 통해 충분한 현장경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

구했다.

강석대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학이 함께 협력함은 물론 설비건설업계의 인력유입과 설비기술인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산사회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



부산사회는 지난 4월 26일 동의대학교 본관2층 회의실에서 김광환 회장, 제한모 부회장, 김재업 부회장, 이원득 감사 그리고 동의대학교 김정길 부총장, 윤대경 산학협력단장, 건축설비공학과 박률 학과장, 이성 교수, 김세환 곳, 김남열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김광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건축설비공학과를 개설한 동의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체결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요식행위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면 성공적인 결과와 산학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말하고 「우

리 협회는 후진양성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만을 편성하여 산업체 위탁교육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된 주요내용은 △건축설비 건설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건축설비 건설산업 관련 각종 실무교육과정 지원 △건축설비 건설산업 관련 데이터, 학술·연구자료 등 각종 정보교류 △건축설비 건설산업 관련 학술적 자문,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의 수행△산학협력 장학금 지급 △기타 양 기관의 협력관계 증진과 건축설비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호관심분야 등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국 시·도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국 시·도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회를 시작으로 3월 23일 대전·충남도회, 3월 24일 울산·경남도회 및 충북도회, 3월 28일 제주도회, 3월 29일 부산광역시회 및 광주·전남도회·경북도회·강원도회, 3월 30일 대구광역시회, 4월 4일 경기도회, 4월 5일 전북도회, 4월 7일 인천광역시회에서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부산광역시회(회장 김광환)는 지난 3월 29일 크라운호텔 신관3층 목련홀에서 본회 박종학 회장을 비롯하여 부산시 김병희 건설본부장, 부산시의회 제공모 부의장, 대한설비공학회 부산·경남지회 이재근 회장 등 내외빈과 대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부산광역시회 김광환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김광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시행으로 작년부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장애인 스포츠센터 등을 분리 발주 하였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정관 지구아파트 옥내기계설비공사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분리발주기로 하였다」면서 「앞으로 분리발주가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광환 회장은 「부산시에서는 우리 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부산지역에서 일어나는 관 및 민간공사를 포함하여 부산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분기별로 조사, 공표하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여 제도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광환 회장은 「협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회원사는 원가절감을 위한 신기술개발 및 신공법 도입으로 고품질을 확보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 박종학 회장은 격려사에서 「부산광역시회는 김광환

회장님을 중심으로 관내 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시개발공사에서 옥내기계설비공사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분리발주기로 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분리발주 확대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의 업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므로써 협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부산광역시회는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부산시 건설본부 강창구 기계3팀장에게 본회 회장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또 부산시 교육청 교육시설과 안상도, 부산시 건설방재국 건설행정과 송숙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김홍정 대리에게 부산시회장 감사패를, 장우기계(주) 허병수 대표이사과 (주)영진에이텍 정수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대구광역시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대구 광역시회(회장 이한수)는 지난 3월 30일 그랜드호텔에서 본회 강석대 부회장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문영수 정무부시장, 대구상공회의소 이희태 상근부회장, 전문건설협회 권오형 대구시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이한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대구지역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역내 주요 발주기관에 대해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적극 추진하여 대구시 교육청의 신축공사를 포함한 설비공사분리발주 전면 시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도시개발공사도 시범적으로 분리발주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년에도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와 협회 위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낙찰된 설비공사를 완벽하고 성실하게 시공함으로써 분리발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본회 박종학 회장은 강석대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대구광역시회는 이한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관내 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신축공사를 포함한 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 시행이라는 성과를 올리는 등, 분리발주 확대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지역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비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등 회원사의 업역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므로써 협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격려하였다.

한편 이날 대구광역시회는 설비건설 발전에 공헌한 (주) 동오 장동원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 대구시 교육청 김도연 시설과장,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이용희 개발 부장에게 본회 회장 감사패를, (주)영진기공 김명옥 대표이사에게 본회 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권중호 기계과장, 대구시 서부 교육청 손영호 지방기계주사보,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이태우 기계과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강수일 사무처장에게 시회장 감사패를 수여하고, (주)명신이엔지 김종삼 대표이사, (주)부성이엔지건설 김시운 대표이사, (주)임하엔지니어링 정의권 대표이사, 태흥엔지니어링 (주) 안호태 대표이사, (주)한국엔지니어링 조남운 대표이사에게 시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인천광역시회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인천 광역시회(회장 전태근)는 지난 4월 7일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본회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 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전태근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는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시공을

우리 스스로 자제하는 등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자정노력과 병행하여 건설관련제도의 실질적인 개선과 더불어 지역자치제도가 정착된 현재 사회구조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및 발주기관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육성 의지와 이에 따른 제반규정의 실행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전태근 회장은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필요성 및 당위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천지역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본사를 인천지역에 두고 있거나 인천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대형일반 건설업체에 지역업체들과의 공생적인 관계가 상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 박종학 회장은 격려사에서 「인천광역시회는 전태근 회장님을 중심으로 분리발주 확대 시행을 위하여 관내 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우리 업계의 업역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므로써 협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시키고, 본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업계의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등, 역동적인 협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인천시회는 이날 총회에서 설비건설 발전에 공헌한 인천

도시개발공사 기술지원팀 유지학 기술지원팀장, 인천시 교육청 시설과 민정기 과장에게 본회 회장 감사패를 수여하고 (주)대지기공 연규석 대표이사에게는 본회 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 기술지원팀 유정태 기계과장 △인천시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 이재용 화공6급주사 △인천시 건설기획과 건설지원팀 이길형 지방기계6급주사 △인천시 교육청 시설과 이만복 설비팀 사무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기계과 고송원 기계1팀장 및 김현정 기계주사 △(주)평상 황재화 대표이사 △인천도시가스(주) 고객봉사실 박문병 차장 △삼천리 인천지역본부 기술영업팀 정재길 계장에게 인천광역시회장 감사패를 수여하고, 2005년 신고실적금액이 높은 △세종기업(주) 김종수 대표이사 △(주)정호기업 최호선 대표이사 △(주)성지기공 이호석 대표이사 △(주)청원엔지니어링 남기영 대표이사 △동제건설(주) 고택준 대표이사 등 다실적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주기술공영(주) 박학주 대표이사, (주)삼인 유성규 대표이사, (주)성두설비공사 유정호 대표이사, 지남공영(주) 김대회 대표이사, 장한기술(주) 유해성 대표이사 등은 인천광역시장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하였다.

광주 · 전남도회 2006년 정기총회 개최

광주 · 전남도회(회장 정석우)는 지난 3월 29일 광주광역시 신양파크호텔에서 본회 김철유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정석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경기가 최악의 여건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기성실적이 6,100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9% 신장으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회원사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본회 박종학 회장은 김철유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광주·전남도회는 정석우 회장님을 중심으로 분리발주 확대와 원·하도급 제도 개선,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적정한 하도급 공사비 확보 등에 대한 노력으로 광주·전남 지역 회원사들이 마음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어려운 건설환경에도 불구하고 9% 대의 성장률을 보인 광주·전남지역 회원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광주·전남도회는 설비건설 발전에 공헌한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 조동현 차량설비과장에게 본회 회장 감사패를 수여하고, (주)케이티엔지 광주제조창 류영규 시설과장과 현대건설(주) 배광일 설비과장에게 광주·전남

도회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설비건설업 발전에 공헌한 유양기술(주) 김찬주 대표와 선양산기(주) 문양오 대표, 세진기업(주) 정형택 대표, 금석기연 이채상 대표에게 광주·전남도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광주·전남도회 회원사 직원인 대하산업개발(주) 박태웅(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과 영진기계(주) 김종배(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직원 및 광주·전남도회 회원사 임직원 자녀 중 (주)성한기업 조종현(조선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대용기업(주) 반재석(조선이공대학 건축설비소방학과)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전 · 충남도회 제22회 정기총회 개최



대전 · 충남도회(회장 성열구)는 지난 3월 23일 계룡스파텔에서 본회 박종학 회장을 비롯하여 충북도회 장순경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유성연 대전 · 충청지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종우 대전 · 충청지회장 그리고 특별위원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성열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 분야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실력을 향상시키고 서로 격려하며 합심해야 한다」면서 「과열경쟁과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우리 스스로 설비시장을 풍성한 Blue Ocean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성열구 회장은 「본인은 사업체 경영이라는 마인

드로 협회를 경영하면서 지역업체 보호는 물론 장기적인 설비인의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어 왔다」면서 「우리 시 · 도회 회원 매출총액이 지난 2002년 2,500억이었을 때 3년 이내 3,000억을 목표로 잡았으나 2004년도에 이미 달성되었고 2005년도에 4,000억원을 초과함으로써 차후 2년 안에 5,000억원 실적 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또 성열구 회장은 「부실하던 Paper Company는 이미 도태되었고 대부분의 건설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여 우리 시 · 도회가 더욱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점점 정예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종학 회장은 격려사에서 「대전 · 충남도회는 성열구 회장님의 협회가 아닌 사업체의 경영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협회 운영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면서, 대전 · 충남도회 회원의 매출 총액이 지난 해 4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회원사의 업역을 크게 신장시키고 있다」고 말하



△대전·충남도회 성열구 회장이 한밭대학교와 우송공업대학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고, 「산·학·연 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장학사업과 설비관련 3개 단체의 공동 강연회 개최는 양질의 기술자 확보와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업계가 마땅히 해야 할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대전·충남도회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개선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기여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곽김구 책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서용석 시설팀장 △충남아산시청 행정국 김석환 국장 △충남논산교육청 관리과 서문석 시설담당에게 본회 회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설과 송양섭 책임기술기원 △우송공업대학 인텔리전트설비계열 채경희 교수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 박봉환 기계설비팀장 △충남교육청 교육시설과 이영국 기계6급에게 시·도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합리적인 현장관리와 신기술개발 및 성실시공으로 설비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대창설비(주) 심염보 부장, (주)유창플랜트 정동수 부장, 코리아엔지니어링(주) 이경원 부장

에게 시·도회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사실적이 250억원 돌파한 (주)대청엔지니어링 성열구 대표이사 등 30억원 이상 돌파한 회원사(표 참조)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밖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산업설비과에 우수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 한밭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와 우송공업대학 인텔리전트설비계열 우수학생(표 참조)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 장학금 수혜자 명단

| 학교명 | 학 과 | 학 년 | 성 명 |
|--------|-----------|-----|-----|
| 한밭대학교 | 건축설비공학과 | 3학년 | 오나미 |
| | | 2학년 | 황인선 |
| 우송공업대학 | 인텔리전트설비계열 | 2학년 | 홍기영 |
| | | | 김승호 |
| | | | 양민석 |
| | | | 유미화 |

■ 2005년도 공사실적 공로패 수상자(회원사)

| 업체명 | 직책 | 성명 | 공적사항 |
|----------------|------|------------|----------|
| (주)대청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 성열구 | 250억원 돌파 |
| (주)대경에너지 | 〃 | 방관수 | 120억원 돌파 |
| (주)화진이엔씨 | 〃 | 홍찬희 | 80억원 돌파 |
| (주)아이티에스 | 〃 | 이치환 | |
| (주)대중엔지니어링 | 〃 | 김대중 | 50억원 돌파 |
| (주)신일이엔씨 | 〃 | 김영술 윤석진 | |
| (주)해팍이엔지 | 〃 | 김재성 | |
| 대경도시가스엔지니어링(주) | 〃 | 김주성 | 40억원 돌파 |
| (주)미래설비 | 〃 | 이상욱 | 30억원 돌파 |
| (주)미래에스코 | 〃 | 구본관 | |

| 업체명 | 직책 | 성명 | 공적사항 |
|------------|----|-----|---------|
| 우상기업(주) | 〃 | 전장기 | 30억원 돌파 |
| (주)일이공사 | 〃 | 박육순 | |
| (주)진화엔지니어링 | 〃 | 박승근 | |
| (주)한성설비사 | 〃 | 최경환 | |
| 휴론텍(주) | 〃 | 김상중 | |
| (주)삼보엔지니어링 | 〃 | 이범학 | |
| (주)엔트란 | 〃 | 이근석 | |
| (주)한일기업 | 〃 | 원종관 | |
| (주)화인텍션추리 | 〃 | 임재인 | |
| (주)인큐 | 〃 | 한상진 | |

울산 · 경남도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울산 · 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지난 3월 24일 창원호텔에서 본회 강석대 부회장을 비롯하여 울산 · 경남도회 김만기 명예회장, 김춘생 울산광역시의회

부위원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김재홍 회장은 개회사에서 「갈수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회의 위상과 회원사의 권익을 찾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한해 관내 공공기관에서 집행한 공사입찰 중 100여 건이 기계설비공사로 분리발주된 바 있으며, 분리발주도 기존 교육청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전문·설비공사 지역제한대상공사금액을 6억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또 김재홍 회장은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를 위하여 각종 지원과 노무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잘 대처해나가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협회에서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전력을 준비함은 물론 회원사의 권익과 지역 설비공사 수주물량 확대를 위하여 홍보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회 박종학 회장은 강석대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울산·경남도회는 김재홍 회장님을 중심으로 관내 발주기

관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강습회 개최를 통해 회원사의 경영정보 창출과 공사수주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를 위하여 각종 지원과 함께 노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봉사정신으로 노사 협의를 훌륭하게 이끌어 내신 바 있다」고 격려하고 「산·학·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장학사업은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업계가 마땅히 해야 할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울산·경남도회는 설비건설 발전에 기여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김완중 담당관 △하동군청 재무과 김영기 담당관 △울산광역시남구청 건설과 한내건 담당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주)대공 이석순 대표이사에게는 본회 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범우이엔지(주) 우종인 대표이사, 동부산업(주) 권영태 대표이사, (주)일진정공 이상엽 대표이사, (주)일성기업 김성열 대표이사, (주)씨티씨 김이수 대표이사에게 도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경기도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회(회장 김영완)는 지난 4월 4일 호텔캐슬 6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본회 박종학 회장을 비롯하여 김철유 부회장, 경기도회 김근희 명예회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김영완 회장은 개회사에서 「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협회에 대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지역별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시·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완 회장은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니만큼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우리 설비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말미암아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더 나아가 우리 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건전한 선의의 경쟁



을 통하여 우리 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본회 박종학 회장은 격려사에서 「경기도회는 김영환 회장을 중심으로 분리발주 확대 시행을 위하여 관내 발주 기관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우리 업계의 업역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산·학 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장학사업과 회원장학금 지원사업은 인재 양성은 물론 회원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업계가 마땅히 해야 할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회는 (주)윤진건설 김길진 대표이사 등 7명이 경기도지사 표창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건설계획과 신석철 과장 등 13명의 유관기관 직원들이 본회 회장 및 도회장 감사패를 수상했고, 경원대 건축학과 3학년 방승환 학생 등 6명에게 경기도회 회원 장학금을 받았다.

그 동안 경기도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설비업계의 인재육성을 위해 3개 대학 설비관련학과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복리증진과 설비업계 발전을 위하여 금년부터 회원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회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강원도회(회장 강현우)는 지난 3월 29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본회 조기호 부회장을 비

롯하여 장순경 충북도회장, 강원도청 안종익 지역도시과장, 강원도 교육청 배선철 시설과장, 한국난방시공협회 이



철회 강원도지부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강현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협회는 건설업의 발전과 경제성장 기여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명실공히 건설업계의 한축을 담당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면서 「이 모든 것이 회원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이며,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슬기와 지혜를 결집하여 우리의 위상 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현우 회장은 「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로 원도급 시장 참여를 보장받고 시공참여제 제도 개선 등으로 하도급시장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인식제고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물량부족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반드시 제값을 받고 성실시공으로 품질향상을 하는 것만이 우리 업계 전체가 발전되는 물론 각 회원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본회 박종학 회장은 조기호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강원도회는 강현우 회장님을 중심으로 분리발주 확대 시행을 위해 관내 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우리 업계의 업역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본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업계의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등, 역동적인 협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강원도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은 본회의 대외업무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회와 더불어 우리 설비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사

랑 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회는 설비건설 발전에 공헌한 (주)그랜드 염성도 대표이사, (합)우신건설 한종석 대표사원, 정보이엔지개발(주) 전일권 대표이사에게 강원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하고, 세명플랜트(주) 이현희 대표이사에게는 교육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고성군청 최종만 경기담당에게는 본회 회장 감사패를, (주)세일설비공사 김의길 대표이사에게는 본회 회장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강릉시청 심우성 계약관리담당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이광남 대리에게는 도회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선엔지니어링(주) 변해관 대표이사, (주)대화설비윤지환 대표이사, 동주설비 이강언 대표, (주)동호엔지니



어링 정교석 대표이사, 서울기계설비(주) 김정희 대표이사, (주)진부엔지니어링 이용식 대표이사는 도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충북도회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충북 도회(회장 장순경)는 지난 3월 24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본회 박종학 회장을 비롯하여 오제세 국회의원, 정우택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진호 전 충북도의회 의장, 한범덕 전 정부부지사, 남상우 전 행정부지사, 한대수 전 청주시장, 박환규 전 도시행정국장, 충청대학 안병욱 총무처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장순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반적인 불황과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제6대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순경 회장은 「여러 발주처를 방문하여 설비건설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협회에서는 발주처의 실정에 맞도록 빠른 변화로 대처해 가고 있다」고 밝힌 후 「시공품질점검위원회를 시범적으로 구성하여 꾸준한 노력과 홍보를 한 결과 발주처의 인식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충북도회의 시공품질점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시공품질점검위원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끝으로 장순경 회장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삼

아 모처럼 조성되어가고 있는 설비공사 분리발주제도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된 공사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건실한 자세로 공사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회 박종학 회장은 격려사에서 「충북도회는 시공품질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리발주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분리발주공사를 수주한 회원사는 기술개발과 성숙된 시공관리능력으로 공사품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충북도회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관리과 강복모 기계주사에게 본회 회장 감사패를 △충청북도회계과 김기학 계약실무자 △충북지방조달청 박노필 계약실무자 △청주시청 재무과 유춘희 계약실무자 △음성군청 재무과 박세덕 계약실무자 △청주교육청 시설과 정명훈 기계감독관에게는 충북도회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설비건설업계의 지위향상과 협회 발전에 공헌한 (주)해광 한무웅 대표이사에게 본회 회장 공로패를, 세일이앤씨(주) 박종근 대표이사와 (주)민성건설 최민성 대표이사에게는 충북도회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히 이날 충북도회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한 각 단체별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협조 공문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회 중 서울사회 다음으로 「시공품질점검위원회」의 구성·시행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북도회 제18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 도회(회장 정성조)는 지난 4월 5일 전주리베라 호텔에서 본회 조기호부회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

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정성조 회장은 개회사에서 「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의무공동도급을 활성화,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투철한 장인 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협회 창립 후 지금까지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설비공사 분리발주제도도 지방자치행정기관에도 정착되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지방자치기관에서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서로가 협력하여 수주 활동을 벌여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피력했다.

또 정성조 회장은 「결실은 씨앗을 뿌린 만큼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수주 받은 공사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을 영원히 추방하고 건축물의 중추 분야인 설

비공사자로서 책임시공의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여 건설시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본회 박중학 회장은 조기호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전북도회는 정성조 회장님을 중심으로 분리발주 확대 시행을 위하여 관내 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기관에도 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등, 우리 업계의 업역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후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므로써 협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본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업계의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등, 역동적인 협회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북도회 2006년 정기총회 개최



경북도회(회장 윤광수)는 지난 3월 29일 포항 송도 코모도호텔에서 본회 홍창기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오명수 경북도회 전임회장, 경상북도 신장하 도시계획과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윤광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도회는 전년 대비 약 23%, 1000억이라는 실적성장을 하였으며, 이것은 전국 설비업계 평균 성장률 6%의 4배가 넘는 수치로서 건설경기가 미미한 가운데서 일구어낸 업적이라 더욱 값지다」면서 「이는 우리 회원사 모두가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금년에도 우리는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된 설비인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본회 박종학 회장은 홍창기 상임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

에서 「경북도회는 윤광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관내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분리발주 확대 시행 등 업역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05년도의 기성실적이 전년대비 약 23%인 1천억원이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 같은 성과는 경북도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업계의 업역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였다.

한편 이날 경북도회는 설비공사업계 품질확보에 진력하면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기여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에 공헌한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전채성 기계과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이웅직 지방기계주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신기술개발 및 성실시공을 선도하고 협회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과 협회 위상제고에 기여한 (주)서현 김태균 대표이사, 백두건설(주) 김병희 대표이사, 대림산업(주) 이명수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제주도회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제주도회(회장 오태권)는 지난 3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오태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협회는 어려운 시기에 임하여 회원업체의 고충과 애로점을 타개하고자 나름대로 도내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를 거둔 바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업계는 도외 자본에 의한 도내의 신규 투자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방안으로 수도권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대형 동종업체의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도내의 시장 잠식에 맞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단한 기술력 향상과 성실시공에 근간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